

주도적 대처는 도박관련 환경에서 문제성 도박의 보호요인인가?†

김혁준

신현지

김교현‡

BK21플러스 중독과자기조절사업팀
박사후 연구원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도박관련 환경의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박관련 환경의 접근성 측면으로는 주변에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 광고를 접촉하는 정도를 상정하였으며 수용성 측면으로는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상정하였다. 또한, 가용성 측면으로는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 정도를 고려하였다. 즉, 도박관련 환경과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물리적 환경 내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도박중독 예방 및 개입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문제성 도박, 주도적 대처, 도박관련 환경,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 A0304565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교현,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42-821-6368, E-mail: kyoheonk@cnu.ac.kr

도박은 유희를 제공하는 여가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자금을 제공하는 등 개인이나 사회에 순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역기능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김교현, 2006). 도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으로는 ‘도박 중독’이 대표적이다.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를 비롯하여 예방 및 개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정신의학회(2013)에서는 도박에 대한 자기조절력을 반복적으로 상실하여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병적 도박(Pathological Gambling)으로 정의하고, 세계보건기구(2018)에서는 지나친 도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도박 장애(Gambling Disorder)로 정의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균형을 이루고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박 중독’, ‘병적 도박’, ‘도박 장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문제성 도박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예측요인과 기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신현지, 2019).

특히, 한국사회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2010년 6.1%, 2012년 7.2%, 2014년 5.4%, 2016년 5.1%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이용하는 주요국의 도박중독 유병률과 비교했을 때 영국 2.5%(2017년), 호주 3.5%(2017년), 캐나다 3.3%(2014년), 홍콩 3.3%(2012년), 싱가포르 2.6%(2012년), 핀란드 2.7%(2012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즉, 한국 사회에서 문제성 도박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높은 도박중독 유병률은 도박에 대해 수용적인 사회 분위기에 기인했을 수 있다. 이를 테면, 한국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놀이 문화의 일환으로 도박이 정착되어 왔고 명절에 가족들과 친목을 다지고 유대를 높이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박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한국은 IT 강국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및 PC 등 인터넷 기반 매체의 이용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Shaffer와 Korn(2002) 역시 문제성 도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박문제가 있는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개인 모형으로는 제한적인 측면이 상당함을 지적하면서 도박에 대한 공중건강적 접근(public health paradigm for gambling)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공중건강적 접근에서는 도박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하는데, 환경의 핵심 속성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에 얼마나 접근하기 용이한가를 의미하는 ‘접근성’, 2)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도박을 얼마나 수용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여기는가를 의미하는 ‘수용성’, 3) 도박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 혹은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를 의미하는 ‘가용성’. 이 때, 접근성과 가용성은 환경의 물리적/제도적 측면을 반영하고 수용성은 사회·문화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의 속성을 반영하는 환경적 측면과 이들이 각각 문제성 도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

먼 다음과 같다. 첫째,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주변에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 환경, 그리고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광고를 접촉하는 정도가 높은 환경은 문제성 도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정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동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래혁, 장혜림, 이재경(2018)의 연구에서도 주변에 도박자가 있는 경우 도박중독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주변에 도박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 혹은 친구가 도박을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성 도박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Langhinrichsen-Rohling, Rohde, Seeley, & Rohling, 2004). 이외에도, 도박 광고는 도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 중 하나로 금전적 보상에 대한 욕구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inde, 2009). 다시 말해 도박 광고에 대한 노출이 빈번해질수록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수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에게 중요한 지인들이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찬성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성 도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행동한다(Ajzen, 1991). 즉, 특정 행동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그 행동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계획된 행동이론을 토대로 수행된 윤설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모험적 여가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 도박성 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거주지 내에 있는 환경 및 개인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경제력, 시간 및 기회가 있는 환경은 문제성 도박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도박중독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서울특별시, 2014). 또한,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및 금전이 많을수록 과도한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이래혁 외, 2018), 도박에 대한 가용성이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증가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취약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이러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주도적 대처는 추후에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문제에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원을 축적하고자 하는 대처방식으로(Greenglass, Schwarzer, Jakubiec, Fiksenbaum, & Taubert, 1999),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삶의 목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warzer & Taubert, 2002). 일례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김현준, 2009) 및 삶의 만족(이세현, 2010) 수준이 높아지고 우울(이유진, 2013)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 및 규칙적인 식습관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혁준, 2019).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으면 문제성 도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개인이 도박에 대한 가용성, 수용성, 접근성이 높아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환경적 조건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다면 문제성 도박으로의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쇄될 수 있다. 실제로, 문제성 도박의 발생 및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한 종단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대처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의 발생 확률이 감소되고 회복 확률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지, 2019).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신현지, 2019). 또한,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규명한 연구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김혁준,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주도적 대처가 다양한 도박관련 환경에서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방법

설문 참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상 도

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 3,74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2~30분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2,339명(62.5%), 여성은 1,403명(37.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1.2세였다.

측정 도구

문제성 도박. 문제성 도박을 측정하기 위해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의 한국판(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문항 중 도박 중독 선별을 위해 활용되는 한국판 도박문제심각도 지표(Korean version of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 K-PGSI)를 사용하였다(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문제성 도박의 Cronbach's α 는 .949로 나타났다.

주도적 대처. 주도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Greenglass 등(1999)이 개발하고 김교현(2001)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한 주도적 대처 척도(Proactive Coping Inventory)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5문항(예: 나는 장기적인 인생 목표를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도적 대처의 Cronbach's는 .828로 나타났다.

지인 도박 유무(접근성).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귀하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도박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있다/없다)' 1문항을 활용하였다.

도박광고 접촉정도(접근성).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 광고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도박광고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1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 전혀 접하지 않는다, 1=가끔 접한다, 2= 자주 접한다, 3= 매우 자주 접한다)로 측정되었다.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수용성). 개인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반을 두어 개발한 2문항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도박을 하는 것을 찬성 해 줄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도박을 하는 것을 이해해 줄 것이다'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891로 나타났다.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가용성). 거주지 내 도박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거주지 내에 도박장(경륜, 경

정, 경마 본장 및 장외 발매소, 카지노, 복권방, 시설 오락실 등)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안다/모른다)' 1문항을 활용하였다.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가용성).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반을 두어 개발한 3문항 '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0=전혀 아니다, 1=거의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761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도박관련 환경과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도박관련 환경의 '접근성'으로는 지인 도박 유무, 도박광고 접촉정도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수용성'으로는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 변인을 투입하였고 '가용성' 측면으로는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 변인을 투입하였다.

결 과

지인 도박 유무(접근성)

지인 도박 유무와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인 도박 유무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738)=212.673$,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도박을 하는 지인이 없는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에 따라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도박을 하는 지인

이 있는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조건이, $gradient=5.051$, $t=17.971$, $p<.001$,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조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ient=3.437$, $t=10.924$, $p<.001$.

표 1. 지인 도박 유무와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N=3,742$)

모형	B	SE	β	t	R^2	ΔR^2
1단계					.142	.142***
지인 도박(A)	4.336	.210	.313	20.630***		
주도적 대처(B)	-.951	.074	-.194	-12.773***		
2단계					.146	.003***
지인 도박(A)	4.244	.211	.306	20.092***		
주도적 대처(B)	-.833	.080	-.170	-10.369***		
A × B	-.807	.211	-.063	-3.829***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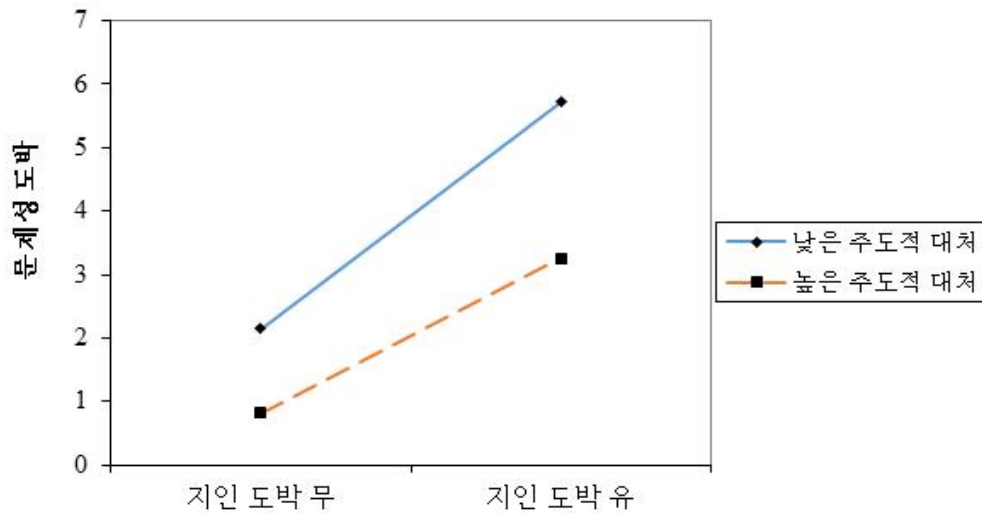


그림 1. 지인 도박 유무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도박광고 접촉정도(접근성)

도박광고 접촉정도와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광고 접촉정도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738)=171.047,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도박광고 접촉정도가 낮은 환경

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에 따라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도박광고 접촉정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조건이, $gradient=1.681, t=15.964, p<.001$,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조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ient=0.923, t=8.836, p<.001$.

표 2. 도박광고 접촉정도와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N=3,742$)

모형	B	SE	β	t	R^2	ΔR^2
1단계					.114	.114***
도박광고 접촉(A)	1.299	.076	.265	17.130***		
주도적 대처(B)	-.926	.076	-.189	-12.221***		
2단계					.121	.006***
도박광고 접촉(A)	1.302	.076	.265	17.231***		
주도적 대처(B)	-.939	.076	-.191	-12.425***		
A × B	-.379	.073	-.080	-5.2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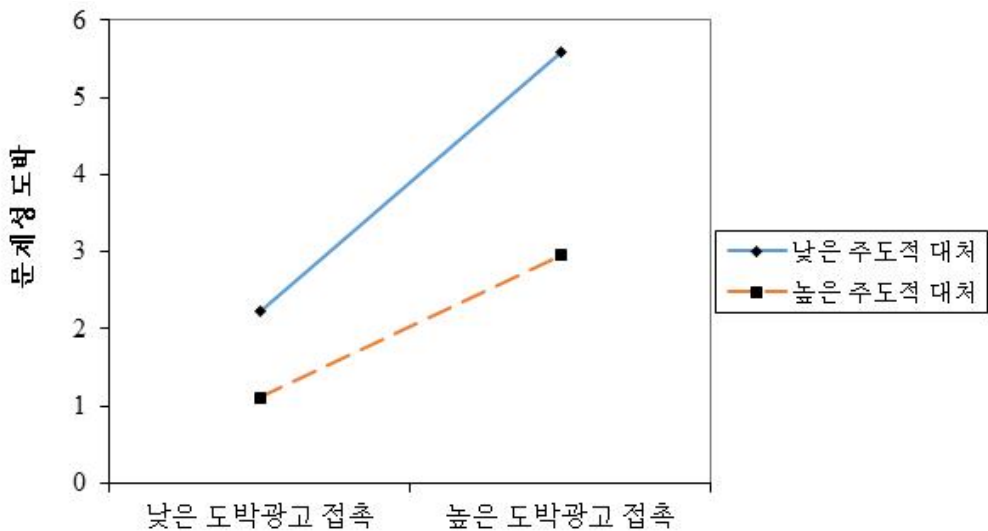


그림 2. 도박광고 접촉정도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수용성)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738)=474.908,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

범이 낮은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에 따라 문제성 도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은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조건이, $gradient=2.734, t=28.819, p<.001$,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조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ient=1.892, t=19.943, p<.001$.

표 3.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N=3,742$)

모형	B	SE	β	t	R^2	ΔR^2
1단계					.268	.268***
주관적 규범(A)	2.346	.069	.478	33.760***		
주도적 대처(B)	-.680	.069	-.139	-9.794***		
2단계					.276	.008***
주관적 규범(A)	2.313	.069	.471	33.382***		
주도적 대처(B)	-.676	.069	-.138	-9.784***		
A × B	-.421	.066	-.090	-6.42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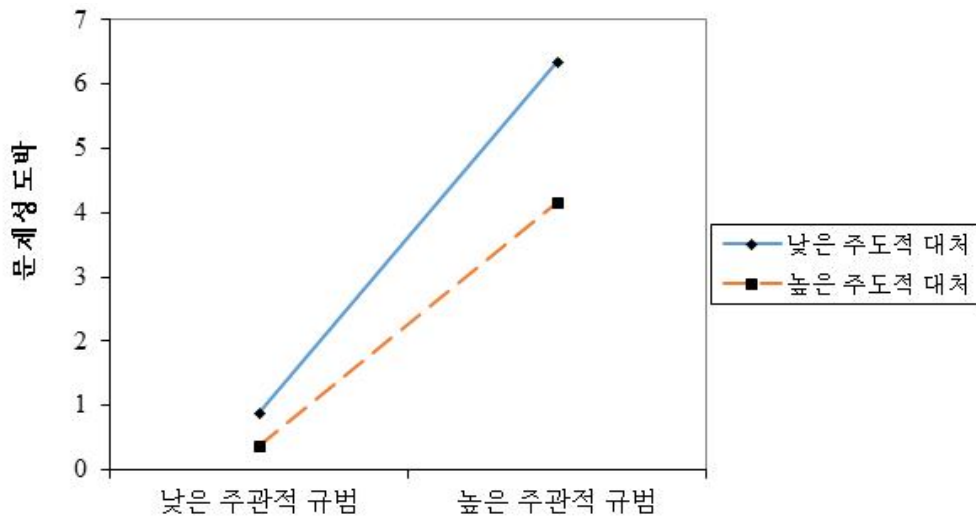


그림 3.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가용성)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와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738)=174.820,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거주지 내 도박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에 따라 문제성 도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거주지 내 도박장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조건이, $gradient=3.621, t=6.918, p<.001$,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조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ient=1.739, t=3.322, p<.01$.

표 4.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와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N=3,742$)

모형	B	SE	β	t	R^2	ΔR^2
1단계					.115	.115***
거주지 내 도박장(A)	2.671	.156	.264	17.175***		
주도적 대처(B)	-1.061	.076	-.216	-14.049***		
2단계					.123	.008***
거주지 내 도박장(A)	2.680	.155	.265	17.310***		
주도적 대처(B)	-.732	.093	-.149	-7.849***		
A × B	-.941	.158	-.113	-5.97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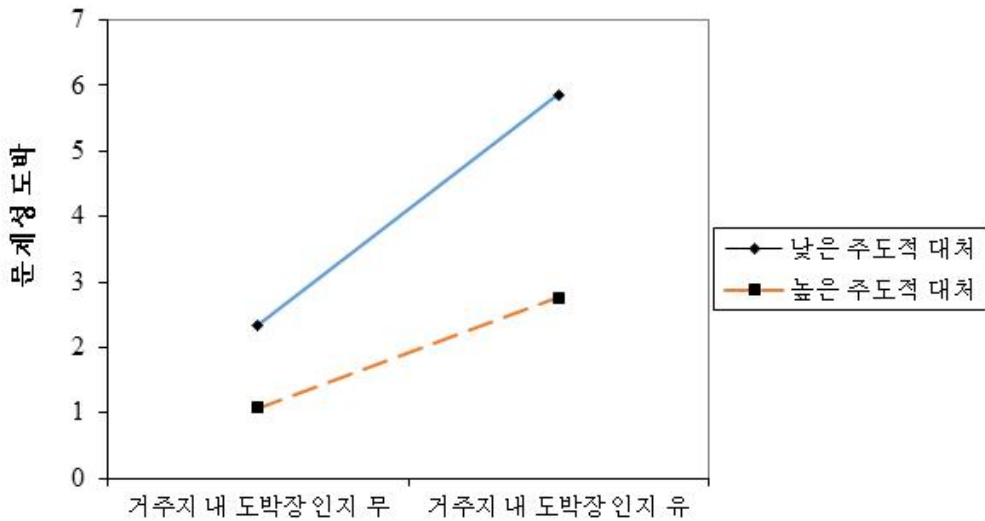


그림 4.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가용성)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와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3, 3738)=397.729$,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그래프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가 낮은 환경에서는 주도

적 대처 태도에 따라 문제성 도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가 높은 환경에서는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기울기 분석 결과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조건이, $gradient=2.690$, $t=26.900$, $p<.001$,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조건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ient=1.602$, $t=16.020$, $p<.001$.

표 5.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와 문제성 도박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 ($N=3,742$)

모형	B	SE	β	t	R^2	ΔR^2	
1단계						.229	.229***
금전, 시간 및 기회(A)	2.110	.071	.345	29.877***			
주도적 대처(B)	-.900	.071	.330	-12.749***			
2단계						.242	.013***
금전, 시간 및 기회(A)	2.146	.070	.369	30.577***			
주도적 대처(B)	-.926	.070	.229	-13.209***			
A × B	-.544	.068	.239	-8.022***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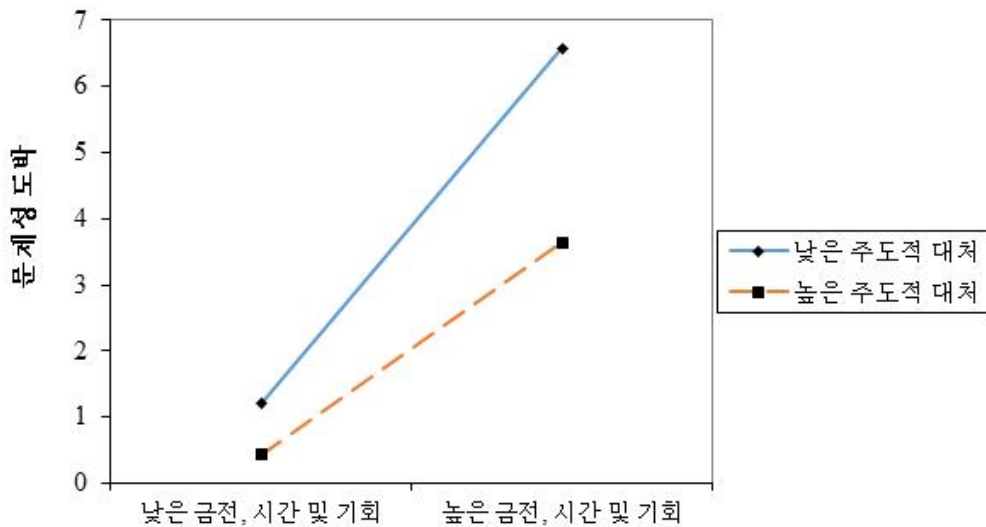


그림 5.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와 주도적 대처의 상호작용 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중건강접근에서 제안하는 환경의 속성인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첫째로, 접근성에 해당하는 도박 환경으로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도박광고 접촉정도’를 상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박을 하는 지인이 있을 때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도박 광고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은 환경에서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으면 문제성 도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로, 수용성에 해당하는 도박 환경으로는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상정하였다. 연구 결과, 도박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높은 환경에서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가용성에 해당하는 도박 환경으로는 ‘거주지 내 도박장 인지 여부’,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의 정도’를 상정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지 내 도박장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에 대한 금전, 시간 및 기회가 많을 때에도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성 도박 수준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개인이 도박에 대한 접근성, 수용성, 가용성이 높은 환경적 조건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개인은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개인에 비해 문제성 도박 수준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시사한다.

인간의 자기조절 과정에는 자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에 대비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Greenglass et al., 1999). 한편, 주도적 대처 태도는 현재 직면한 부정적인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태도로,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개인은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개인에 비해 자기조절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으로 문제성 도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개인은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개인에 비해 도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주도적 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이세현,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대처 태도가 높은 경우 주거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주도적 대처 태도가 낮은 경우 주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도적 대처가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있는 개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시키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장면에서 개인의 주도적 대처 태도를 높여주는 것이 유용함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개인이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놓여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주체적으로 인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문제성 도박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개인이 도박을 이용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도박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성 도박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주도적 대처는 다양한 장면에서 유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처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였다(김혁준, 2019). 이러한 실정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도박 상황에서 주도적 대처의 효과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를 통해 도박관련 환경과 주도적 대처가 문제성 도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였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 혹은 중단 연구를 통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합법 도박을 이용하는 참여자들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법 도박을 이용하거나 주식 등 도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흥미로운 정보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의 발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박관련 환경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문제성 도박의 회복적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박 문제를 극복한 지인이 있는지 여부 혹은 자조 모임이 이루어지는 센터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성 도박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일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문제성 도박의 기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은 문제성 도박을 예측하는 주요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강성군, 2010). 이는 성별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성군 (2010). 도박 행동과 문제의 성차: 내국인 카지노 출입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김교현 (2001). 주도적 대처척도. 사회과학연구, 12,

- 23-34.
- 김교현 (2006). 도박행동의 자기조절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243-274.
- 김아영, 차정은, 권선중, 이순목 (2011). CPGI의 한국판 제작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4), 1011-1038.
- 김혁준 (2019). 주도적 대처와 정서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건강증진행동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준 (200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설민 (2010).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통한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 관광객의 행동지속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래혁, 장혜립, 이재경 (2018). 청소년의 돈을 딴 경험과 도박 유해환경이 문제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8(9), 284-293.
- 이세현 (2010). 노인의 생활스트레스가 삶의 만족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도적 대처의 조절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유진 (2013). 성공적 노화 전략이 노년기 삶의 만족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 2018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울특별시 (2014). 서울시 사행산업 현황 분석 및 부작용 폐해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 신현지 (2019). 문제성 도박의 발생과 회복을 설명하는 발달단계 모형.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 Washington, DC: APA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inde, P. (2009). Exploring the impact of gambling advertising: An interview study of problem gamb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7(4), 541.
- Ferris, J. A., & Wynne, H. J.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Ottawa, ON: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 Greenglass, E., Schwarzer, R., Jakubiec, D., Fiksenbaum, L., & Taubert, S. (1999, July). The proactive coping inventory (PCI): A multidimensional research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tress and Anxiety Research Society (STAR)*, Cracow, Poland.
- Langhinrichsen-Rohling, J., Rohde, P., Seeley, J. R., & Rohling, M. L. (2004). Individual, family, and peer correlates of adolescen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1), 23-46.
- Schwarzer, R., & Taubert, S. (2002). Tenacious goal pursuits and striving toward personal growth: Proactive coping. *Beyond coping: Meeting goals, visions and challenges*. 19-3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Shaffer, H. J., & Korn, D. A. (2002). Gambling and related mental disorders: A public health analysi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3(1), 171-212.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1th Revision)*. Retrieved from <https://icd.who.int/browse11/1-m/en>

원고접수일: 2019년 4월 23일

논문심사일: 2019년 5월 21일

게재결정일: 2019년 6월 14일

Is Proactive Coping a Protective Factor of Problem Gambling in Gambling-Related Environment?

Daniel Hyukjune Kim

Hyun Ji Shin

Kyo-Heon Kim

BK21 Plus Addiction and Self-regulation Business Tea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proactive coping can act as a protective facto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problem gambling in consideration of gambling related environments. In terms of accessibility, we present the presence of acquaintances who gamble and the degree of contact to gambling advertisements either online or offline. In terms of acceptability, we present subjective norms for gambling. In terms of availability, we present awareness of gambling occurring in the vicinity, money, time, and opportunity for gambling. In other words,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gambling-related environment and proactive coping on problem gambling, we examined the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problem gambling in an integrated manner.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adul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active coping. As a result, the moderating effect of proactive coping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vailability and problem gambl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oactive coping can act as a protective factor in the social, cultural, and physical environment that negatively affect problem gambling. Finally, we discuss how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gambling addiction.

Keywords: problem gambling, proactive coping, gambling-related environment,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vailability